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산자여 파르라

글/그림 서태우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로운 시선... 기억을 공유하고 오월을 담아내다

'오월 전시'는 다양한 미술 장르를 아우러왔다. 회화·판화 등 정통 장르와 함께 올해는 젊은 세대들의 참신한 시도가 담긴 웹툰,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포스터 전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끈다.

◇각자의 시선 오월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은 다채롭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광주 남구 양림동 225-25)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5·18 40주년 기념전 '각자의 시선'전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다양한 장르, 연령대의 작가들이 참여한 기획전이다.

전시에는 양나화·윤세영·하승환·노은영·서법현·황인호·이인성·정강임·신도원·정광희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미디어 아트,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오월을 이야기한다. 특히 80년을 겪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선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수많은 인물 군상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김승택 작가의 '사람들', 오월항쟁의 장소에서 촬영한 이세현 작가의 '옛 국군통합병원 수술실 복도',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5월의 소리', 하루 K 작가의 '보안부대 내 경작 금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북에서 활동하는 전교조 출신 작가들의 프로젝트 제안에서 시작됐다. 경북 작가들은 '현재 우리에게 5·18민주화운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광주 지역 현대미술 작가들이 화답하면서 전시가 진행됐다. 2018년 열린 첫 교류전 '5월 저 너머에', 이듬해 열린 두번째 교류전 '각자의 시선'전이 그 결과물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북 작가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광주 지역 작가만 자발적으로 작품을 출품했다.

3개월만에 '국악 in 가요' 25일,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이 약 3개월만에 관객과 만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야의 너털마당에서 2020토요일상설공연 첫 무대로 청년국악팀 '국악인가요'를 초청해 '국악 in 가요'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임제의 시조를 바탕으로 한 '복천이 맑다'를 문을 연다. 이어 어쿠스틱과 국악의 느낌을 동시에 살린 자작곡 '정춘아리랑',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을 EDM으로 편곡해 선보이는 '방아요'를 무대에 올린다.

<11> 전시·일러스트&웹툰·포스터

아트폴리곤 '각자의 시선'전

Bhc갤러리 27번가 '일러·웹툰'전

생각상자 갤러리 '40인 포스터'전

◇오월 청년 일러스트&웹툰 전 새로운 세대에 의한 5·18의 기록과 기억 작업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열린 일러스트와 웹툰 공모전은 젊은 세대의 오월 관련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화, 조형, 판화 등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일러스트와 웹툰이란 기술은 5·18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광주아트가이드가 주최·주관한 '오월 청년 일러스트&웹툰 전'에는 독일을 비롯해 서울·인천·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53점이 응모됐고 이 중 16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 출품작은 오는 31일까지 Bhc 갤러리 27번가(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김승택 작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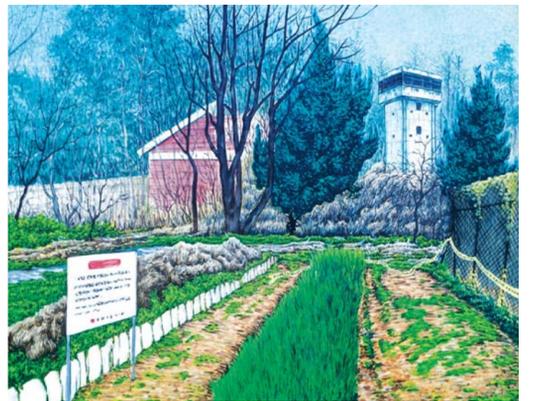
에서 열리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1등상인 민주상을 수상한 서태우의 '산자여 파르라'는 5·18 진상규명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한 웹툰이며 2위로 뽑힌 백기희의 '심장에 새긴 그들의 민족정신'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빠곡히 담겼다. 또 3등으로 뽑힌 김민주의 '이어진 마음'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오월 정신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5·18 4040 포스터

지역의 작가들이 오월의 이미지를 포스터로 제작한 전시도 눈길을 끈다.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남문로 628)에서 오는 7월13일까지 열리는 '5184040 포스터'전은 40명의 작가들이 5·18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 원화를 전시한 기획전이다.

작가들은 "나에게 5·18은?", "우리에게 5·18?"이라는 질문에 답해 그 메시지를 포스터 작업에 담아냈다. 전시에는 고근호·김일권·김자아·김지현·김지준·노정숙·박종석·손영환·이상호·홍성담·홍성민 작가 등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작가가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하루K 작 '보안부대 내 경작금지'

'어르신 ship' 인문학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25일~8월10일 카페 노블

어른의 선한 영향력을 모티브로 한 '어르신 ship'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 시민인문학이 주관하는 이번 '공동체를 점검하다-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솔선수범 헌신하는 '어르신 Ship'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지난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됐으며,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열린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문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미학, 심리학, 예술 등 통합형 주제에 따라 운영된다.

첫 번째 세션 '근대 개인의 탄생과 리더십'은 명혜영 박사가 선각자를 통해 본 슈퍼리더십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슈퍼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후의 과정, 오늘의 리더십의 의미 등을 다채롭게 펼쳐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인간, 그 갈등의 심연'을 보다는 서명원 박사가 '예술 정신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종교는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세 번째 세션 '공동체 문화'에서는 이향준·박주희 박사 등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 유학적 수양론', '어른의 인성, 감성, 그리고 공감'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마지막 세션(금요일)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주희 박사의 '공동체 금융특강'이 예정돼 있다.

수강 신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상봉 교수



청년국악팀 '국악인가요'

한편 전통문화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토요일상설공연을 야외 너털마당에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featuring logos for CES and BIG Innovation Awar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DASAN PRIMO' clothing, featuring portraits of staff members, product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a store in Gwangju.